

국내 車 주행거리 '경유차' 으뜸

지난해 전체 3천271억km 중 절반 차지...매년 증가세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총 주행거리는 3천271억km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288만2천대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지만,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9.2km로 오히려 0.7% 줄었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경유차 주행거리가 1천643억km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경유차의 주행거리는 전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전체 주행거리 중 경유차의 비중은 2014년-지난해 44.9%→46.1%→48.0%→49.0%→50.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휘발유차의 주행거리는 1천170억km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LPG차 주행거리는 361억km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총 62억km를 주행해 전년보다 주행거리가 33.7%나 늘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권병용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주행거리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연구원 등에 배포하고 일반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신형 쏘나타



QM6

'LPG車' 이제 골라 타볼까

이제 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마음껏 구매, 탈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법 다수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택시업계와 렌터카, 장애인만 탈 수 있던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3개사가 LPG 차량 시장에서 각축전을 예고했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을 출시하되 택시용으로만 팔지 않기로 했다.

LPG차는 휘발유차와 비교하면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의 차량 구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보급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반기 중 신형 쏘나타의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은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상반기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완전변경(풀 체인지)이 예정된 K5를 출시 초기부터 일반인용 LPG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3개사는 각사의 주요 '볼륨 차종'(많이 팔리는 차종)에 일반인용 LPG 모델을 추가함에 따라 '모델 노후화'로 감소세를 보이는 국내 LPG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는 '쏘나타=택시'라는 인식을 깨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형 쏘나타의 LPG 모델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인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LPG 충전소에서 LPG차가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신형 쏘나타·QM6 LPG모델 상반기 출격 구매가격도 휘발유차와 비슷...연료비 저렴

을 택시용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인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채택해 트렁크 공간을 대폭 늘렸다.

'도넛형'은 르노삼성이 2014년 대한LPG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에 장착함에 따라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릴 수 있고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춰 승차감도 높여준다.

르노삼성은 승용 LPe 모델 모두 '도넛 탱크'를 탑재해 큰 여행용 가방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어 택시와 렌터카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은 앞서 2017년 10월 규제 완화 때 일반인도 LPG SUV를 살 수 있게 된 이후 QM6 LPG 모델 개발을 시작했으며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했

다. QM6는 국내 판매 중인 SUV 가운데 유일한 LPG 모델이 된다.

반면, 한국지엠은 2016년 말리부 2.0 LPG와 최근 다목적차량(MPV) 올란도를 단종한 이후 LPG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제너럴모터스(GM)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고 내연기관은 다운사이징 방침이 있기 때문에 LPG 차량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내수 3위 업체인 쌍용차도 현재 LPG 모델이 없으며 앞으로도 생산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인이 LPG차를 살 때는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개소세와 교육세가 부과된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또한 택시와 렌터카는 사양 측면에서도 휘발유 모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용 LPG 모델은 휘발유 모델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이 LPG차를 고려한다면 유류비 절감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쏘나타를 기준으로 LPG 모델의 공인연비는 10.3km/ℓ로 휘발유 모델(13.3km/ℓ)보다 낮지만 가격은 ℓ당 797.8원(오퍼럴 3월 2주차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1천359.3원)보다 낮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천km를 운행하는 조건에서 쏘나타 LPG 모델의 연간 유류비는 116만1천859원으로 휘발유 모델(153만3천67원)보다 25% 적게 든다.

/임후성기자



BMW, 3세대 로드스터 '뉴 Z4' 사전계약

BMW코리아는 3세대 2인승 로드스터 '뉴 Z4'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는 '뉴 Z4 sDrive20i 스포츠 라인'과 '뉴 Z4 sDrive20i M 스포츠 패키지'가 다음달 먼저 선을 보이고 '뉴 Z4 M40i'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운전의 즐거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3세대 뉴 Z4는 BMW 브랜드 최초로 수직형 헤드라이트가 적용됐고, 내부에 헤드레스트 일체형 'M 스포츠 시트'가 깔렸다.

뉴 Z4는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85mm, 전폭은 74mm, 전고는 13mm 각각 늘어났고, 휠베이스는 줄어들었다. 앞뒤 윤간 거리는 각각 98mm, 57mm 늘어났다.

전동식 소프트탑(여닫을 수 있는 지붕)은 최대 50km/h 구간까지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고, 트렁크 용량은 180ℓ에서 281ℓ로 늘었다.

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6.6초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M40i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0.9kg·m의 힘을 내며,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단 4.5초다.

이번 모델에는 운전자 주행보조 시스템과 함께 최신 운영체제인 'BMW OS 7.0'도 제공된다.

주행보조 시스템으로는 주행 중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량이 앞단 길을 자동으로 거슬러 돌아가도록 한 '후진 보조'(Reversing Assistant) 등이 있다.

BMW OS 7.0은 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iDrive' 컨트롤러, 터치스크린, 음성조작 등으로 조작할 수 있다. 가격은 뉴 Z4 sDrive20i M 스포츠 라인 6천520만원, 뉴 Z4 sDrive20i M 스포츠 패키지가 6천710만원이며, 뉴 Z4 M40i는 9천700만원이다.

BMW코리아는 오는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모터쇼 2019'에서 뉴 Z4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타민나무 계약재배

3.3m²(1평)당 4~6萬 소득



- 비타민나무는 화학비료나 농약살포가 필요 없어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재배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당사는 천연비타민 원료로 제약, 식품,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하며 천연비타민 정, 비타민 차, 비타민 음료, 비타민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확되고 있는 당사 농장 견학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나무재배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제품 및 원료를 개발하는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전액국비 자격취득 및 취업예정자 모집

매일훈련수당 40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 매일 훈련수당 20만원지급(훈련회사 무관)
- 채용약정 취업처 확보
- 고용센터상담없이 자체선발(카드발급 필요없음)
- 최고의 시설과 장비 확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직업상담사 (과정 평가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기관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직업 안전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광주형 일자리 확정 전기·자동차

- 자동차부분품조립
-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자동차제어
- 특수용접(일반용접)
- 전기공사
- 자동차엔진정비

(재)호남직업전문학교 ☎ 062) 605-8000